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민 의견 반영한 마스터플랜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대통령집무실팀
2025.8.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소통협력팀
2025.10.28.

세종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11월 20일 마감된 가운데 11월 28일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중순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8월 28일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밝히고, 국제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세종시 S-1생활권 전월산·원수산 자락 아래에 약 210만m²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대상지는 세종시 6개 생활권이 환상형 구조로 연결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국가 행정기능과 시민활동의 결정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정되었다.

국제 공모의 핵심 요구사항은 대상지의 지형과 도시 구조를 반영한 입체적 공간계획으로 주요 건축물 배치·동선 설정, 경관 형성, 입면 디자인 등 공간 구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을 요청하였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연계, 보안 및 경호 여건을 고려해 구역 북측 배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기능 변화에 대비한 유보공간 확보와 확장성이 계획 요소로 포함된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구역 남측)에 대해서는 집무실과 시민공간 등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치와 디자인을 제안받을 예정으로, 이는 마스터플랜 선정 이후 국회가 별도의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진행한다.

시민공간은 두 핵심 기관을 연결하는 개방형 공공축으로, 문화·교육·휴식 기능을 담은 시설과 공원·가로·녹지 등 공공공간을 연계하는 구조가 공모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10월 28일에는 국가상징구역과 관련한 기본 구상과 공간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8.2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보도자료].